석유화학 메이저의 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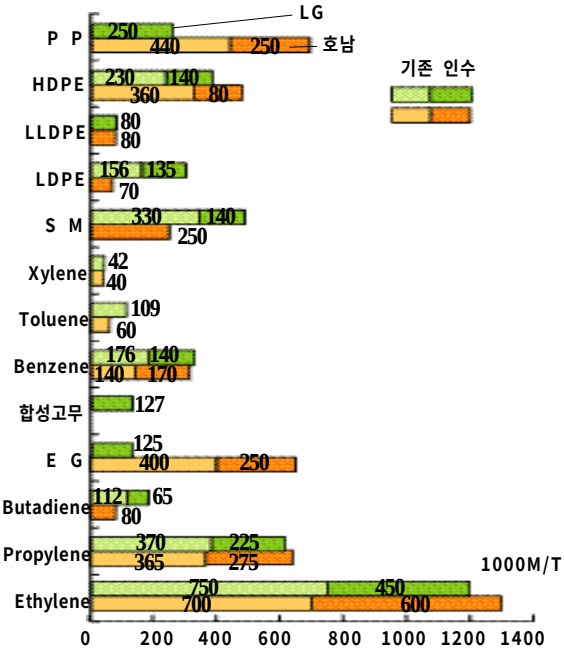
한국 석유화학산업도 메이저가 주도하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을 분할 인수함에 따라 에틸렌 생산능력이 100만톤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폴리올레핀 생산능력도 100만톤 안팎으로 확대돼 경쟁기업들과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으로 성큼 올라섰기 때문이다.

에틸렌 생산능력 100만톤은 가볍게 거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은 물론 에틸렌 및 프로필렌을 원료로 사용하는 폴리올레핀 생산능력 또한 각각 100만톤, 140만톤에 이르고 있으니 규모의 경제를 넘어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이 10년간의 장기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폴리올레핀을 비롯한 폴리머 사업의 M&A를 적극 추진했어도 생산능력 100만톤을 확보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LG화학과호남석유화학의 석유화학제품생산능력 변화



물론 최근 들어 중동에서 새로운 에틸렌 컴플렉스를 건설하면서 에틸렌 생산능력 120만-130만톤은 보통이고 심지어는 150만-160만톤 크래커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즉, 중동의 신규 크래커와 비교하면 LG화학이나 호남석유화학도 대단한 수준을 아니라는 역설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석유화학 시장의 핵으로 등장한 동아시아에서 에틸렌 생산능력 100만톤에 폴리올레핀 100만톤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생산량의 2/3 정도를 Spot 시장에 내놓고 있는 현실을 잘만 활용하면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동아시아 시장을 휘어잡을 수도 있는 막강한 파워를 보유하게 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즉, LG-호남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는 메이저가 시장을 주도하는 파워마켓 시대가 열렸다는 국내적인 의미와 함께 동아시아 시장에서 Shell, BASF, Bayer, Dow Chemical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국제적 의미를 동시에 되새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유일의 메이저라고 평가받아온 LG화학이 기초유분 및 폴리올레핀 사업을 더욱 강화해 초강력 파워를 행사하는 거대 메이저로 탄생하고, 기초유분과 폴리올레핀 부문에서 LG화학을 넘어서는 메이저로 성장한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까지 인수하면 역시 거대 메이저로 탄생함으로써 국내시장 판도가 두 메이저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에틸렌 생산능력 600만톤에 폴리머 생산능력 1000만톤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 유럽 ·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어 제 위치를 잡지 못했던 데서 탈피해 LG-호남 주도로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했다는 의미가 평가되고 있다.

물론 국내시장에서는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시장을 과점함으로써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고, 국제시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놓고 글로벌 화학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결코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LG화학이나 호남석유화학이 메이저로서의 위치에 맞게 제 역할을 수행해준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고, 또 한국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의 분할 인수를 계기로 한국 석유화학산업을 선진화시키는데 정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화학저널 2004/08/2· 9>